

다이세츠잔 (大雪山) 국립공원의 모습

# 천상 낙원의 동식물

다이세츠잔의 중부에는 다카네가하라 (高根ヶ原), 고시키가하라 (五色ヶ原), 누마노하라 (沼ノ原), 코가네가하라 (黄金ヶ原) 등 표고 1,400~1,800m 정도의 고도에 펼쳐진 대지 형태의 지형이 있다. 고산식물로 물들거나, 습지의 연못이 빛나는 경관은 바로 「카무이민타라」, 신들이 노는 정원에 어울린다. 이들은 대규모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한 퇴적물이 두껍게 쌓인 화쇄류 대지 (台地) 이다.



야카다케산 (赤岳) 의 식물군락



쥐토끼

황모시나비

표범나비의 일종

## 고산에 사는 특이한 동물

다이세츠잔 (大雪山) 의 고산대에는 일본에서는 이곳이나, 극히 한정된 지역에서 밖에 볼 수 없는 동물이 서식한다. 쥐토끼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다이세츠잔계, 히다카 (日高) 산맥, 기타미 (北見) 산지와 유우바리 (夕張) 산계의 한랭한 바위 많은 환경에서 서식한다. 또, 황모시나비, 아사히후유문 (표범나비의 일종) 등도 일본에서는 다이세츠잔에서만 서식한다. 이것들은 같은 종이나 매우 가까운 근친종이 아시아 북부나 알래스카 등 북극권의 주변에서 서식한다. 홋카이도 (北海道) 가 한랭했던 시대에는 지금보다 넓은 범위에 서식하고 있던 것이 빙하기가 끝난 후 온난화에 의해서 고산 등 한랭한 지역에만 남은 유존종 (遺存種) 으로 불리는 동물들이다.

- 1 솔양진이
- 2 진홍가슴
- 3 잣까마귀



## 고산대의 새

다이세츠잔 (大雪山) 의 고산대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새는 솔양진이다. 솔양진은 아한대 침엽수림에 서식하는 새이다. 일본에서는 불규칙한 겨울철새로, 주로 홋카이도 (北海道) 에 도래한다. 그러나, 다이세츠잔, 히다카 (日高) 산계, 라우스다케 (羅臼岳), 리시리산 (利尻山) 등 홋카이도 고산의 눈잣나무대에서는 여름철에도 관찰됨에 따라 다이세츠잔에서는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외, 진홍가슴, 잣까마귀, 황등새 등이 고산대에서 볼 수 있다.

## 다양한 고산식물 군락

광대한 고산대가 있는 다이세츠잔 (大雪山) 에는 지형과 기상조건에 따라 다양한 고산식물 군락이 발달해 있다. 다이세츠잔의 고산대는 표고 약 1,700~1,800m 이상에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생육하는 식물은 250 종 이상이 알려져 있으며, 눈잣나무와 고산식물군락이 어우러져 다양한 색채의 경관을 만들고 있다. 식물군락은 환경 별로 몇 개의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암력지의 성주풀과 구름털제비꽃, 시로사마니요모기 (국화과) 등. 키큰나무가 생육할 수 없는 풍충지의 치시마트가자크라 (진달래과), 이와히게 (진달래과), 미네즈

오우 (진달래과) 등의 왜성 키작은나무군락. 능선부 적설이 적은 장소의 눈잣나무 군락. 적설이 많고 습윤한 장소의 바람꽃, 에조킨바이소우 (금매화속식물), 가솔송, 토카치후우로 (쥐손이풀과 식물) 등. 설원의 아오노즈가자쿠라 (진달래과), 게움 펜타페탈룸, 에조코자크라 (앵초과) 등. 습지의 연못에서는 조름나물 혹은 에조호소이 (골풀과) 등을 볼 수 있다. 희소종도 많아 두메자운, 진요우키스미레 (제비꽃과), 호소바우룻프소우 (현삼과) 등의 다이세츠잔 고유종과 비로용담과 긴잎끈끈이주걱과 같이 분포가 극히 한정된 종류도 볼 수 있다.



- 1 치시마츠가자쿠라 (*Bryanthus gmelinii*, 진달래과 식물)
- 2 호소바우룻프소우 (*Lagotis minor* var. *yesoensis*, 현삼과 식물)
- 3 성주풀
- 4 시로사마니요모기 (*Artemisia arctica*, 국화과 식물)
- 5 가솔송